

나진 · 선봉 기행

A Visit Najin and Sunbong of North Korea

최동규 / 서인디자인 그룹

by Choi Dong-Kyu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내가 가게된다고 하니 약간 긴장도 되고 묘한 기분이 느껴진다. 심지어 아내는 안갈 수 없느냐고까지 했다. 혹시 못오면 어떻게 될까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통일연수원에서 몇 명의 일행과 같이 교육을 받았다. 같은 피, 같은 언어를 가진 민족이 인위적으로 나뉘어 상대방을 방문하는데 이렇게 하루종일 지루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한편으론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마지막 교육시간에는 북한에 가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는데, 그때서야 긴장감이 생겼다. 마침 슈퍼 옥수수 종자개발로 유명한 김순권박사와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은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북한에서 자신이 개량한 옥수수 종자가 그곳 기후와 풍토에 맞는지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다. 한국도 예고없이 닥쳐온 경제한파로 나라전체가 뒤숭숭한 편인데, 북한은 왜 그토록 대책없이 식량위기를 맞았던 말인가? 이점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남한이나 폐쇄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은 남북이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한가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처음 북한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통보받은 날짜가 작년 12월이었는데, 그것이 예고없이 늦어지면서 이리다 못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론 북한가게 됐다고 괜히 주변사람들에게 슬쩍 얘기했던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사실 처음 이북가게 됐다고 하니까 이북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미국 가느냐고 되물어서, 북한이라고 했더니, 다들 반응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고 궁금해 했다.

이 부분에서 북한에 가게 된 경위부터 조금 밝혀야겠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전직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고, 또 독일켈른에 있는 고딕식 대성당을 흉내내어 지은 교회라, 이름만 대도 대부분 잘 안다. 이 교회가 주축이 되고, 또 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 추진했던 일중에 북한의 나진 · 선봉에 교회와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필자가 이일을 맡아 계획안을 그려주고, 이른 아침에 브리핑까지 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이 94년이였다. 이일을 추진한 분과 평소 잘 아는 사이여서 부탁을 받고 일을 해준 것인데 잘 추진도 안되고 해서 헛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전화가 오더니 나진 · 선봉지역내에 제약공장을 짓게 되었다고 부지조사차 가야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호기심반, 그리고 가기 쉬운 곳도 아닌데 이 기획에 한 번 가

보자 하는 생각에서 함께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상당한 기일이 흘러 북한으로부터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변담보서가 98년 1월초나 되어서 온후에야 마침내 출발일자를 1월 19일로 잡게 되었다.

속초에서 떠나면 배편으로도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나진을 서울에서 대련으로, 중국 북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1시간 30분동안 날아갔다. 그리고는 대련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비행후 연결에 도착, 이곳에서 다시 대우연번호 텔소속 20인승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30분 동안이나 훈춘을 거쳐 도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원정리라고 불리는 국경선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다리를 건너야 북한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필자는 우리가 힘들게 가지고온 회충약을 포함한 약보따리와 함께 차를 타고 건너려 했으나,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다리를 차를 타고 건너가기 보다는 일행들이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걸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필자도 함께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자 초소에 아주 어려보이는 북한군인이 두 명 있었다. 어린 북한군 병사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의 적으로 교육받아온 저들 아닌가? 이미 그곳에는 경제를 주로 가르치는 김책대학 출신의 나진·선봉 대외경제협력국 부국장 리철수와 김형직사범대학 출신인 대외사업부 박영일 등이 녀대의 성능 좋은 일제 지프차를 가지고 우리 일행을 맞으러 대기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북한운전수를 보는 기분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란. 거의 50년간을 총칼을 맞대고 매일 적으로 느끼게끔 된 그들이 아닌가? 가끔씩 방송을 통해 서로의 사회상황을 조금은 알지만, 모든 것이 서먹서먹하면서도 같은 동포인

데 하는 애뜻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북한국경 세관사무실 오른쪽으로 멀리 북한내의 유일한 자유시장이 보인다. 흡사 서부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디언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든 나무울타리를 두른 요새처럼 생겼다. 그곳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을 함경도 북단길을 탈탈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렸다. 우리 눈에 익숙한 소나무가 길아래쪽으로 보인다. 남쪽에 있는 소나무와 생김새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무, 돌, 흙... 주변의 무엇을 쳐다봐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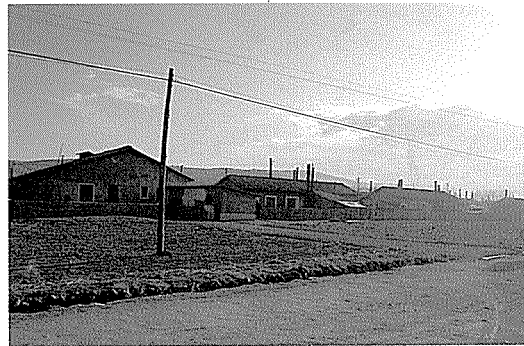
지나다보니 곳곳에서 가끔 언론에서 북한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보여주던 자료화면 속의 낯선 구호들과 함께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받드는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띈다. 거기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수령과 함께 영생하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는 등의 각종 구호들이 나뉘어 있다. 왜 허름하고 험벗은 산하에 저렇게 강력한 구호들만 무성할까? 어찌보면 자신감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오후 느지막하게 나진·선봉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로비의 그 을씨년스러움이라니. 그래도 우리는 타국땅 낯설은 어느 곳엘 가도 호텔을 정해 짐만 풀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서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다.

로비 천정에는 수없이 많은 전등이 달려있지만, 그 수많은 전구중에 3-4개만 켜져 있을 뿐이다. 전력사정의 어려움을 알 것 같다. 방은 Suite라고 불리우는 특실이었는데 우리 일행은 호텔복도 양쪽 끝 두 개의 객실에 여장을 풀었다. 객실은 방 2개에 화장실이 2개인데 화장실 하나 크기가 무



나진·선봉 공업특구에 편입되어 있는 논과 밭. 오른쪽에 나지막한 뚝이 보인다.



시내중심에 있는 민가군들



왼쪽에 보이는 산능선이 나진·선봉 특구의 경계선. 공업지역으로 개발되면 어딘가로 사라져야 할 민가들이 산자락에 사이좋게 모여 있다.

려 호텔객실 크기만 하다. 그리고 짐을 풀자마자 저녁무렵에 대외경제협력국 신문소 국장이 주최하는 만찬이 어딘가에서 벌어졌다. 여기서 '어딘가에서' 라고 모호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쪽같으면, 아니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선 식당이나 호텔, 여타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짐작할 만한데 이곳에서는 캄캄한 밤에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서 들어 간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걸 도대체 대외경제협력국 건물의 어느 곳에도 만찬을 차린 것인지, 다른 곳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찬장에는 떡, 해물, 국, 룡용술 등이 정성스레 차려져 있다. 여자 종업원들이, 그들식 표현대로라면 '접대원동무'가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주량이 도량이라고 하면서 빈속에 술부터 권한다. 그것이 북한식 식사방법이라 한다. 앞서 돌, 물, 흙, 나무 등 어느 것 하나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을 대하고 보니 하나하나 구사하는 말도 다르다. 술잔을 들고 하는 말이 "쭉냅시다" 였다. '쭉들이킵시다' 라고나 해석하면 맛을 듯 싶다. 이거 같은 민족끼리 우습다. 룡용술이 계속 받아 마셨더니 곧 취기가 오른다. 나중에 뒷골이 조금 무거울 것이라고 주의를 준다. 식사중에 담배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국장은 하루 두 갑씩 피운다며,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으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고 하소연 한다. 누가와서 고쳐주면 끊겠다.

다음날 아침 호텔창으로 나진항을 바라보았다. 길거리에 지나 다니는 사람들은 식량보따리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땀감을 조그만 수레에 담아 끌고가는 사람, 깃발을 앞세우고 건설현장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가는 아이들 정도로 아주 쉽게 구분이 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깃발을 들고 갔던 사람들은 시내에 새로운 구호간판의 구조물을 설치하

기 위한 일꾼들이라고 하였다. 나진·선봉은 개방한 지 3년이 됐다고 하는데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철수 부국장은 이번 제약공장건을 성사시키려고 어지간히 서둔다.

아침 일차 후보지로 선정됐던 후창리를 갔다. 호텔에서 차로 약 40분가량 달려 나진·선봉지대의 경계 지역까지 갔다. 도로보다 1.5m 정도가량 낮은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산자락에 한무리의 민가들이 모여 있다. 땅을 파려면 지적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도는 고사하고 지도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일하던 시절이 남한에도 있지 않았던가.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보고 없으면 그것을 탓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건설국장에게 바람의 속도, 동결심도, 적설량, 강우량, 기타 건축에 관련된 기술적사항 등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후창리 대지를 보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나진·선봉에 와서 그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제약공장을 굳이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시내중심과 가까운 곳에 대지를 선택하기로 하고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그들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청계동과 신흥동 두 곳을 보았는데 두 곳 모두다 마음에 들었다. 우선 시내에서 가깝고 또 제약공장이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공해물질 배출도 얼마 안되고, 또 최종목적이 선교이니만큼 시내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상 필수였다.

우리의 최종계획은 한국전쟁 당시 을지로5가에 세웠던 메디칼 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 곳에는 좋은 음식점까지 있지 않았던가? 나진에는 바람이 몹시 분다. 그날 시내근처에 있는 땅을 보러갔던 날은 모든 일



나진시내 민가집단. 나무울타리를 보는 순간 30년전으로 시계를 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흡사 영화세트를 보는 것 같다.



시내 신흥동 지역에 있는 빈 땅과 인근 민가군의 모습



시내에 있는 관복도형 6층 아파트. 도로에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고 보따리를 지고가는 사람들만 보인다.

정을 마치고 북한을 떠나던 날이었는데 바람이 어찌나 심하게 부는지 짚차문을 두 손으로도 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진바람에 황소머리 깨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를 실감케 했다.

또 하나 이번 여행에서 소개할 인물이 있는데 그냥 '심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그는 충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학생때는 학생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졸업 후 신학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1년간이나 나진·선봉호텔 사장을 지내기도 한 친구인데, 미국시민권자이기도 하다. 성격이 워낙 대담하고 통이 커서 그런지, 그는 거의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북한사람들하고 시원스레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농담도 잘섞어서 이야기한다. 옆에서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다. 마지막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엄홍남 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다. 이때 일어난 대화 한토막을 소개해 본다. "심동무, 남조선 '말' 지에 북한의 쌍소리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연재한 것 읽었습니다. 내용은 객관적인데, 결국 자유주의 분자가 쓴 글이야! 우리 공화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분자'란 말이 제일 나쁘게 평가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리철수 부국장이 한마디 더 거든다. "심동무는 부러운 운동주의자야!"

그는 그 말뜻을 못알아 들었다. 브라운 운동이란 말은 물리학에 나오는 용어라고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을 이른다. 엄위원장의 자유주의분자라는 지적에 약간 당황한 듯 심선생의 말수가 적어진다.

어쨌거나 심선생은 복잡해서 잘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가 그곳에 1

년간 있으면서 리부국장이나 김현철과장 등과 많이 친해져서 가끔 그들의 집에까지 놀러갈 정도라고 한다. 원래 북한에서는 외국인을 자기집에 데려오면 안되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 집에 갈때는 빙빙돌아서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하고 간다고 한다. 이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그리고 개인에게 선물을 줄 때도 개인적으로 몰래주어야지, 같이 있는데서 주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 회의때 김형직사범대학을 나온 박영일이 대화내용을 일일이 기록한다. 얼마나 피곤한 사화인가? 나는 대화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기 있는 심선생, 재미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도 맞다고 화답한다. 나같으면 저사람이 나진·선봉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아나나만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 나진·선봉을 개방해서 경제특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융통성이 없겠는가? 김현철 과장은 국제관계 대학을 졸업했고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고 한다. 꿈이 프랑스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나진·선봉특구에서 근무하게 된 셈이다.

이튿날은 선봉에 있는 중국과 합작한 제약공장을 보았고, 또 선봉병원을 둘러보았다. 병원건물은 우리 60년대 다니던 국민학교 건물에 병원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바깥날씨가 비교적 추운편인데도 병원내부는 온기가 별로 없다. 부족한 의료장비를 남쪽에서 끌고루 챙겨서 보내주겠다는 말에, 그들은 그저 고맙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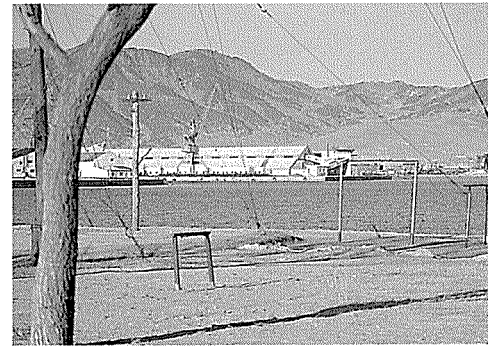
나진에서 선봉가는 길에 일단의 민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집집마다 허름한 나무판자로 된 울타리로 구분되



나진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나진호텔 객실내에서 바라본 나진항. 왼쪽위에 잠수함이 기항하고 있는 듯하다.



나진항구 전경. 움직임이 거의 없어 개발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어 있고 지붕은 금시라도 떨어져 내려올 듯한 모양으로 기와로 이어져 있었다. 골짜기에서는 밥을 짓는 것인지, 난방을 하는지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정말 궁금하다. 집들 주변엔 별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길거리에는 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량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 산에서 땀감을 모아 조그만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 또 간혹 어디론가 걸어가는 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가끔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트럭위에 일단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진역을 가본다. 나진역은 일제시대 지은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시대 부산역을 설계했던 건축가의 솜씨라고 한다. 나진역장실에 가서 평양까지의 교통상황을 알아본다. 기차로 20시간 걸린다고 한다. 우리에게 너무 느려서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단선이기에 역마다 서로 교행을 하며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아마 복선으로 해야 할만큼 인·화물의 물동량이 많지 않은가 보다. 뒤이어 나진항에 갔는데, 컨테이너가 한쪽에 쌓여있고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기중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마치 정지화면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결국 나진, 선봉지역을 개방은 했지만 투자자들이 몰려들만한 특별한 매력은 없는가 보다. 그러니 나진 시내가 이렇게 정적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그들이 이 조그만 제약공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리도 열심인 것을 보니 짐작이 간다. 드디어 시내에 있는 부지후보를 몇군데 보고 다시 들어왔던 순서의 역순으로 바쁘게 국경쪽으로 떠난다. 우리 일행은 세관에서 그동안 잠시나마 정이 들었던 그들과 작별하고 북한

땅을 훌훌히 떠났다.

'선봉'이라는 지명은 혁명의 선봉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명인 아오지탄광은 '은덕'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다는데, 이는 아마 북한체제내에서 소위 반동분자로 분류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남쪽에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말로는 '수령님이 베푸신 은덕'이란 뜻에서 지명을 '은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본래 북한의 건축을 보려고 갔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중 건축에 관계된 사진 몇 장을 함께 소개한다.



우리측 일행과 북한관계자들. 오른쪽 세 번째가 나진·선봉 대외경제협력국 리철수부국장이고 왼쪽에서 세번째가 나진 건설국장



나진역장실에 걸려있는 나진항개발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심선생이다.



시내중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타원형 6층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궁금하다. 밤에는 한층에 전등이 한 개 정도만 켜져 있다.



나진·선봉 합영제약공장내에 있는 탁아소



나진역 전경.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부산역 설계자의 솜씨라고 한다. 역광장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다.